


제1회 한마음선원 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청년불자들이 상원사 참배에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하트를 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청년불자 350여명이 참여해 마음공부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 세계청년 불자들 "주인공에 맡기면 '우리는 하나'"

## 〔현장〕 제1회 한마음선원 세계청년연합수련회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 청년불자 350명 참여**
**불교문화유산 견학 · 담선 진행**

**8월 6일 본행사서 장기자랑**
**"불심으로 한마음 되어요"**
**서산정 참배서 원력 다져**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 8월 초순의 한 토요일, 사찰 불단 앞에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사자탈을 쓴 청년들이 신명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묘기와 같은 춤사위에 법당에 모인 350여 청년불자들에게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청년불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여름더위보다 거셌던 이 대회는 바로 한마음선원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세계청년연합수련회였다.

8월 6일 저녁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는 세계각국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이날 자리는 7월 30일부터 한국에서 세계청년수련회를 소화한 한마음선원 국외지원 청년들이 안양본원에서 한국 각 지역의 청년불자들과 교류하는 자리였다.

한마음선원 미국 뉴욕 · LA · 시카고 지원, 캐나다, 태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50여 청년불자와 전국에서 모인 지원 300여 청년불자들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교감을 나눴다.

장기자랑에서는 본원 청년회의 풍물과 사자춤 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지원과 태국 지원의 댄스가 진행됐다.

캐나다 토론토 지원에서 온 추정인 씨는 "우리 지원을 자랑하고 싶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공존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지원에서 온 청년불자들은 선법가와 피아노 · 기타 연주를 선보였으며 LA지원 손연재 씨는 홀로아리랑을 불러 교포 출신 청년불자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손연재 씨는 "이번 수련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 음성공양을 올린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어느새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련회에서 보여준 각국 청년불자들의 화합의 힘이라면 통일이 당겨질 것이라 보인다"고 아리랑을 부른 이유를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

수련회 장기자랑의 백미는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연극단 '청공'의 연극이었다. 대행 스님의 법문 '지옥 간 훈련대장 이야기'를 주제로 이들은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다. 자신의 업으로 인해 뱀으로 태어난 훈련대장이 업을 녹이기 위해 스님의 조언을 듣고 뜨거운 아궁이 불 속에서 자신을 녹이는 것이 내용이었다. 연극 공연을 마친 뒤 출연진들은 "내 속의 무한한 가능성,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헤매었을까 생각하며, 마음공부하는 도반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마음선원 각 지원에서 청년법우들 30여명이 모여 만든 법문등 350여개를 들고 서산정 참배와 함께 촛불재를 진행했다. 법문등은 7월 9일부터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광주, 통영 등 전국 지원의 청년법우들이 모여 함께 만든 LED등이었다. 이 제작과정도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대구지원 정상재 씨는 "국외지원 법우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이기에 대행 스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등을 만들게 됐다"며 "밤을 세워가며 LED작업을 했지만 등을 본 해외지원 청년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든 줄 모르겠다"고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촛불재에서 이들은 대장부, 푸르게살라 등을 부르며 대행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뉴욕지원 김효진 씨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감사함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수련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고 많은 순간들을 앞으로 내내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캐나다지원 임혜리 씨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다른 법우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수련회는 제 인생 내내 잊지 못할 값어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세계평화와 불법홍포를 위해 해외지원을 세우신 대행 큰 스님의 원력이 씨앗이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다"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회에서 등불을 밝힌 것처럼 마음공부로 스스로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5일 입재한 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서 청년불자들은 조별 담선, 촛불재 등의 프로그램과 노년의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 참배, 최초로 중생구제의 원력을 펼쳤던 장소인 치악산 견성암 참배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에 앞서 국외지원 청년불자들은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음성 광명선원에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국외지원연합수련회를 진행했으며, 8월1일부터 4일까지는 부산지역과 문무대왕릉,감은사지,불국사,석굴암 등 경주지역 순례, 문경새재길 산책과 래프팅 체험, 통일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화합재, 경복궁 견학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안양 한마음선원 인근 서산정에서의 촛불재 기념사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독일지원 불자들의 선법가 합창.


안양본원 청년회의 사자춤과 풍물공연.


원주 치악산에 위치한 대행 스님 오도처 견성암 참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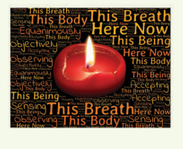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제 2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않는 수행자로서,오직 화엄경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 : 1:1친견시만 해당됩니다,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후 확인증을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강 좌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깨달음센터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깨달음 센터
(구. 화엄경 강원)
주지 원일 합장